

*** 성령께서 하시는 일(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

제 6 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음열기 전기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골에 사는 한 노인이 서울 아들 집에 갔다가 밤에 전깃불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밝기가 대낮 같았습니다. 이 노인이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소켓, 전선이 전부였습니다.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그걸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햇빛같은 전기불을 사왔노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두워지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빛을 보여 주겠노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전선을 연결한 뒤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는 기분으로 사람들은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위치를 올렸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Q1 왜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기선을 마당에 늘어놓은 빨랫줄에다가 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와 연결된 전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힘을 공급해 주는 발전소와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열기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과 자외선 등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인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1. 성령은 교회 신조의 수호자입니다.

>>> 성령님은 교회의 결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결정한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

게 접근한 일이라든가, 전도자를 세우는 일, 또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결한 세 지침(행 15:28-29)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유대 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 세계는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하고 토의하는 일은 좋은 일이요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모두 헛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 성령 없는 예배에도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빌 3:3) 거기엔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4. 성령으로부터 교회의 교제와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마 16:13-20).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교회 안에서 참다운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리'는 자연적인 인간의 특성이며 "통일"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요 13:35).

5. 성령으로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집니다.

고전 12:7

고전 12:11

>>> 신앙의 세계에는 새로운 창조 사건이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세계의 신비를 무시하고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논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 3:5

>>>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임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딤후 3:5-7).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엡 1:13-14),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십니다(롬 8:16).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습니다.

1.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 16:8

>>>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내적인 갈등을 느끼거나 후회 또는 참회를 할 때 이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행 2-3장)

2. 회개하게 하십니다.

엡 2:8

갈 5:22-23

>>>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義認) 성화(聖化)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의인(義認)과 성화(聖化)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과, 성도로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일은 구별됩니다. 이 두 가지를 시간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그 본질은 다릅니다. 활동의 주체

에 있어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주관적 역사에 의존하고 성화는 성령의 주관적 역사에 의존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대적 변화를 의미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새로 태어남은 최초의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이고 성화는 점진적 전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꾸준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구원'을 이름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성결케 하시는 영'의 역사에 의존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객관성에 치우치게 되어 결국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사건이 신앙사건으로 변하기까지는 **□□□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 성령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 이십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를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이성주의의 반대가 '신비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여깁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복음의 원자 진리가 되십니다.

핵은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하여도 적이 덤비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핵이란

□□□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 □□□□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것

□□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생각열기

?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체험

?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체험

라. 성품이 변화되는 체험

그리고 다양한 은사의 체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